

경남지역 수출중소기업의 통상환경 변화와 실적 영향조사

2023. 8

창원상공회의소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경남지역 수출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통상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수출실적의 영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해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의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조사기간

- 2023년 7월 1일 ~ 8월 19일

3. 조사방법

- Fax, E-mail(온라인 설문)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4. 설문 응답업체의 일반적 특성(n=181)

수출품목에 의한 구분			수출대상에 의한 구분		
	완성품 및 모듈	부품 및 원자재성		해외주재 내국기업	해외주재 외국기업
업체수 (개사)	112	115	업체수 (개사)	65	145
비중 (%)	49.3	50.7	비중 (%)	31.0	69.0

수출국가에 의한 구분									
	북미	아시아 (중·일 제외)	중국	일본	서유럽	동유럽	남미	중동	기타
업체수 (개사)	65	64	39	37	29	24	14	11	12
비중 (%)	22.0	21.7	13.2	12.5	9.8	8.1	4.7	3.7	4.1

II. 요약 및 시사점

- 경남 수출중소기업 181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체감하는 수출실적과 통상환경(10개 부문)의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설문결과, 경남 수출중소기업의 통상환경의 전 부문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했음. 수출실적의 경우 수출물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수익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남 수출중소기업 수출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통상환경 변화는 'FTA활용'과 '기술규제'인 것으로 나타났음.

- 경남지역의 수출 FTA 활용률은 2019년 상반기 58.3%에서 2023년 상반기 73.4%로 15.1%p 증가하는 등 활용률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통상환경 악화에도 경남 수출물량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풀이됨.
현재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기조로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나라와 협정 관계에 있는 국가의 원산지증명과 품목분류, 통관 절차 상 협정의 위배와 불합리성 여부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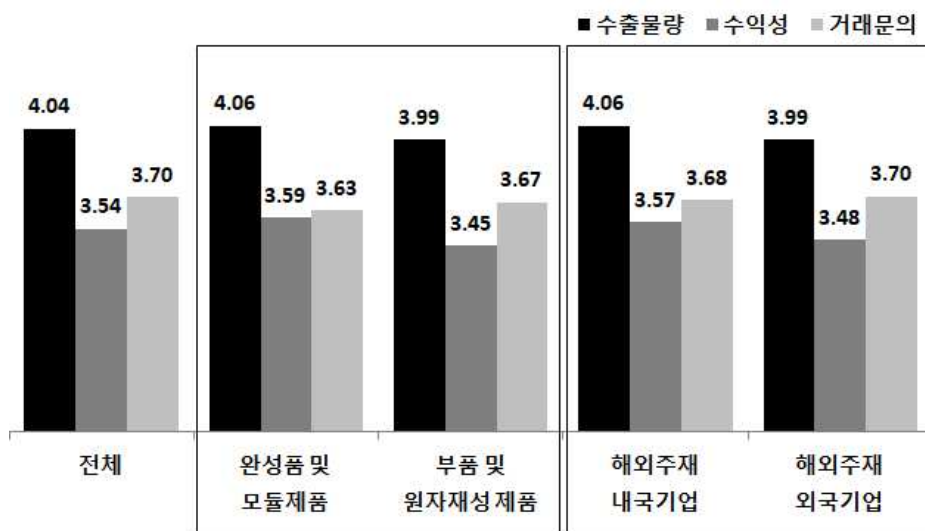
- 다음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분야는 '기술규제'환경임.
기술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증심사와 그에 수반하는 비용부담을 들 수 있음.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의 일종으로 품질요건의 상향과 요청자료 증가 등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들이 수출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까다로운 인증절차와 각국 인증제도의 불확실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세계 각국 인증제도의 취득절차와 비용 등 상세정보를 담은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인증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Ⅲ. 조사결과

1. 코로나19 이전 대비 체감 수출실적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급망 불확실성, 환율변동, 원자재가격 상승, 물류구조 변화, 지역별 무역분쟁 등 국내외 통상환경의 변화가 이루어 졌음. 이에 경남지역 직·간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체감하는 수출실적과 환경변화 수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음.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체감하는 수출실적의 변화를 1~7점(1점 크게 악화했다, 7점 크게 개선되었다) 척도로 지수화한 결과, ‘수출물량’은 4.04점으로 기준치(4점 변화없다) 수준을 나타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수출 물량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수출물량의 회복에도 수익성(3.54)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수출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문의(3.70)도 기준치를 밑돌았음.

<그림 1> 경남 수출중소기업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체감 실적 (n=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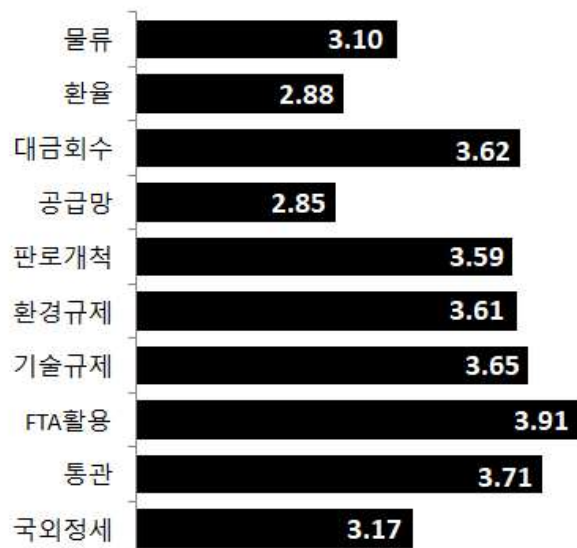


- 수출실적(수출물량, 수익성, 거래문의)에 있어 수출품목별로는 ‘완성품 및 모듈’이 ‘부품 및 원자재성’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거래대상별로는 ‘해외주재 내국기업’과의 거래가 ‘해외주재 외국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

3. 코로나19 이전 대비 체감 통상환경 변화

- 경남지역 직·간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체감하는 통상환경 변화를 평가한 결과, 본 조사에서 통상환경 요인으로 제시한 ‘물류’, ‘환율’, ‘공급망’, ‘대금회수’, ‘판로개척’, ‘환경규제’, ‘기술규제’, ‘FTA활용’, ‘통관절차’, ‘국외정세’ 등 10개 항목 모두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10개 항목 중 ‘FTA활용’(3.91) 분야가 기준치(4점, 변화없음)에 근접하게 조사되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통관’(3.71), ‘기술규제’(3.65), ‘대금회수’(3.62), ‘환경규제’(3.61), ‘판로개척’(3.59), ‘국외정세’(3.17), ‘물류’(3.10), ‘환율’(2.88), ‘공급망’(2.85)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2> 경남 수출중소기업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체감 실적 (n=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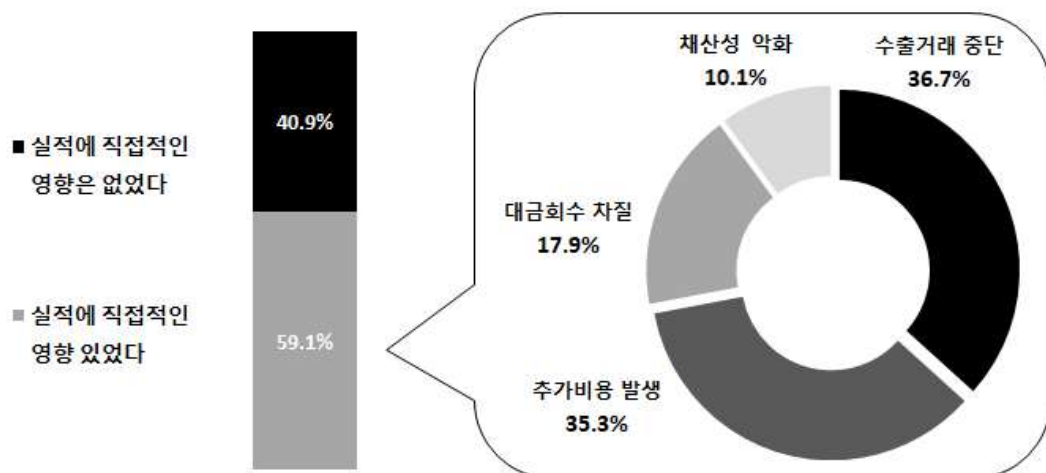
- FTA는 복수 국가 간 상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의 하나임에도 활용 여건이 다소 악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FTA활용에 수반되는 원산지 관리, 품목분류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협정을 우회해 보호무역을 펼치는 기조가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특히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인도, 베트남 등과의 거래에서 양허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과 기타 절차가 복잡하거나 품목분류 수정 등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 중국, 대만, 베트남,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은 까다로워진 통관절차로 통관비용과 물류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음.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가장 악화된 환경으로 ‘공급망’을 꼽고 있음. 특히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남의 수출중소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조달되는 공급체계 불안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더욱이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한 원자재가격 상승도 공급망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재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불안과 더불어 ‘물류환경’도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코로나19 기간 지속되었던 항공·해상 물류비 상승과 선박 부족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경제활동 재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이러한 재산성 악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
- 기술규제와 환경규제는 WTO협정을 비롯한 각종 자유화 협정을 우회할 수 있어 최근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경남 수출중소기업들은 기술 및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다양한 해외 인증과 절차 및 비용을 들 수 있고, 인증 조건 또한 갈수록 까다로워지는데 따른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불거진 對EU 수출과 관련한 환경 이슈도 경남 수출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판로개척과 대금회수 부문은 수출중소기업의 전통적인 애로요인으로 작용해왔음. 중국을 비롯한 경남 수출중소기업의 주요시장 국가들이 자국 내 조달을 추진하고 있고, 현지 진출 내국기업들 또한 현지조달을 통해 불확실성 해소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성향이 짙어지면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국의 통관 및 규제 강화가 이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곧 경남 수출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떨어뜨려 과도한 할인 요구는 물론 대금회수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기간 단절되었던 인도, 이집트 등으로부터 경제활동이 재개된 현재까지 대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음.

4.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직접적 수출영향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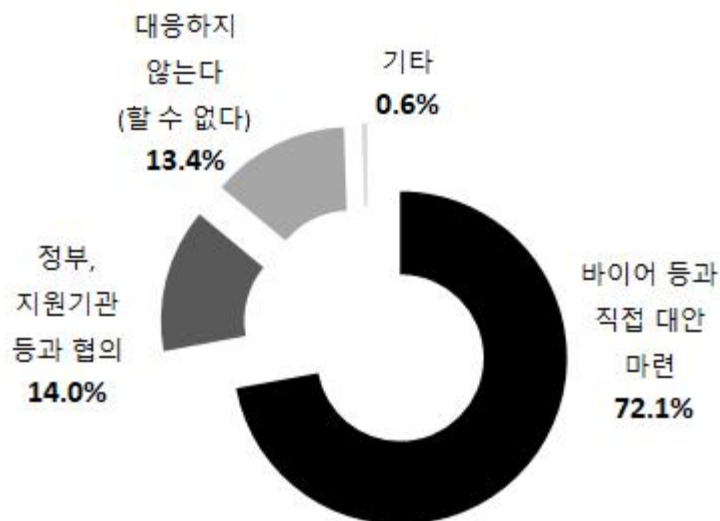
- 코로나19를 전후로 변화한 통상환경으로 인해 수출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59.1%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40.9%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답했음.
-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수출거래가 중단되었다’,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는 응답이 각각 36.7%, 3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금회수 차질’ 17.9%, ‘채산성 악화’ 10.1% 순으로 답했음.

<그림 3>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n=181)



- 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한 애로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71.1%가 ‘바이어 등과 직접 협의해 자체적으로 대안을 찾는다’고 답했음. 이어 ‘정부, 지원기관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한다’로 답한 비중이 14.0%로 뒤를 이었고, ‘특별히 대응하지 않는다(할 수 없다)’로 응답한 비중도 13.4%를 차지했음.
- 통상 애로에 대해 ‘정부, 지원기관 등과 협의한다’는 비중이 14.0%에 그쳤으며, 그 이유로 ‘일상적인 일이므로 애로사항이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어떠한 기관·단체를 찾아야 할지 모른다’ 32.7%, ‘신뢰하지 않는다’ 9.6%, ‘기타’ 3.8% 순으로 답했음.

<그림 4>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5. 통상환경 변화가 수출실적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한 통상환경의 체감변화요인들이 실제 수출실적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음. 통상환경 분야 중 ‘물류’, ‘환율’, ‘공급망’, ‘대금회수’, ‘마케팅’, ‘환경규제’, ‘기술규제’, ‘FTA’, ‘통관절차’, ‘국외정세’ 등 10개의 체감변화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수출실적의 체감변화를 종속변수로 삼았음.

- 분석결과, 'FTA'(B=1.038), '기술규제'(B=0.994), '대금회수'(B=0.885), '공급망'(B=0.872), '마케팅'(B=0.510), '물류'(B=0.419) 환경의 변화가 경남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실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명력 35.5%) 반면, '환율'(B=-0.389), '환경규제'(B=0.262), '통관절차'(B=-0.423), '국외정세'(B=-0.113) 환경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음.

<표 1>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실적 변화(다중회귀)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공차 (TOL)	분산팽창 (VIF)
	B	SE	β			
(상수)	4.137	1.114		3.715***		
물류	.419	.203	.158	2.062*	.609	1.642
환율	- .389	.286	-.140	-1.358	.335	2.984
공급망	.872	.291	.325	2.996**	.304	3.286
대금회수	.885	.284	.249	3.118**	.562	1.778
마케팅	.510	.248	.174	2.055*	.501	1.996
환경규제	.262	.367	.072	.715	.349	2.863
기술규제	.994	.440	.237	2.259**	.327	3.059
FTA	1.038	.322	.273	3.225**	.500	2.001
통관절차	- .423	.341	-.109	-1.238	.459	2.179
국외정세	- .113	.236	-.038	-.480	.581	1.720
F(p)				10.898***		
adj.R제곱				0.355		
Durbin-Watson				1.802		

$p < .001 = ***$, $p < .01 = **$, $p < .05 = *$

- 경남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환경변화요인은 'FTA'활용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3년 2분기 기준 21개, 59개 국가와 FTA협정을 맺은 바 있고, 경남의 경우 수출에서 73.4%, 수입에서 84.5%의 활용률¹⁾을 보이고 있음.²⁾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출 58.3%, 수입 60.9%의 활용률을 보였던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 높은 수준임.

- 수익성 확보와 신규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경남 수출중소기업들은 수출실적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FTA 활용률의 극대화를 모색해 나가는 것으로 풀이됨.

현재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기조로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나라와 협정 관계에 있는 국가의 원산지증명과 품목분류, 통관 절차 상 협정의 위배와 불합리성 여부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분야로 ‘기술규제’환경을 꼽고 있음.

기술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증심사와 그에 수반하는 비용부담을 들 수 있음.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의 일종으로 품질요건의 상향과 요청자료 증가 등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수출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로 경남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에서 각종 인증과 이에 수반하는 비용부담을 애로요인으로 꼽고 있음. 특히 까다로운 인증절차와 각국 인증제도의 불확실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세계 각국 인증제도의 취득절차와 비용 등 상세정보를 담은 매뉴얼 제작 및 배포와 컨설팅 및 비용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금회수’ 부문은 수출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본질적인 변수이므로 수출실적과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유추 가능한 결과임. 특히 중국, 베트남, 인도 등 경남 수출중소기업의 주요시장 내 경쟁심화와 거래단절 등이 발생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리스크로 인해 대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금회수 부문의 불확실성이 경남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실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 $FTA \text{수출활용율} = \frac{FTA \text{특혜대상품목의 원산지증명 발급액}}{FTA \text{특혜대상품목 수출액}} \times 100$

$FTA \text{수입활용율} = \frac{FTA \text{특혜 적용액}}{FTA \text{특혜대상품목 수입액}} \times 100$

2)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 FTA 활용지도

응답업체 주요 애로사항 정리

업체	애로사항	분야
1	중국의 불안정한 생산으로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	공급망 및 채산성
2	코로나전에는 베트남이 주수출국이었으나 이후 방글라데시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LC거래를 하게 되었음. 복잡한 서류요청과 수수료 공제로 수출대금이 인하되었음. 또한 경쟁업체의 과도한 할인 요구 등 영업과 실거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무역전공자가 없어 더욱 힘들)	
3	금리인상 등에 따른 생산성악화가 결국 가격경쟁력 상실	
4	유럽과 일본의 경우 발주 후 도면 변경, 단가 변경 등을 수시로 요구하면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음.	
5	과도한 할인 요구와 더불어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음	
6		
7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단가 경쟁력 악화	
8		
9	국내가격상승에 따른 수출의 가격 경쟁력 악화	
10	주요고객사인 일본의 엔화 약세 및 국내제작사의 단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짐	
11		FTA
12		
13	인도 원산지 수출시 서류 절차 복잡	
14		
15		
16		
17	원산지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요구사항이 많고, 절차 까다로움	
18		
19		
20	베트남의 경우 타 FTA에 비해 혜택이 적어 활용하기 어려움	
21		해외인증
22		
23	국내 FTA 활용시스템을 사용자가 활용하기에 복잡하고 까다로움	
24		
25		
26	해당국의 인증정보가 부족함	
27		
28	국내외 인증절차와 비용이 과다함	
29		
30		
31		
32		
33	각국의 제품인증을 별도로 받아야하며, 취득비용 뿐만 아니라 갱신비용 또한 상당함.	
34		
35		
36		
37		

38		
39	인도와의 거래시 수금에 어려움이 자주 발생함	대금회수
40		
41		
42	대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LSS 강제 징수 등 불리한 무역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43	중동지역 결재 시 비협조적이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음	
44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중단된 품목이 있음	안보리스크
45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내 투자한 자회사에 대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비용 증가 등으로 영업 손실이 확대되고 있음	
46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수출이 급감했음	
47	러시아 제재로 인해 송금 관련, 전략물자 비대상 자가판정서 등 서류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48	러시아로의 송금이 어려워 거래에 차질을 빚고 있음	
49		
50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51		
52	코로나 이후 물류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했음	물류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컨테이너 선복(특수화물 포함)을 구하지 못해 선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67		
68		
69		
70	인도 수출품 HS CODE 수정 변경 요청으로 물류비 및 통관비용이 증가되어 해결하는데 애로가 있음	
71	화물의 선사반입제한 기간이 너무 짧으며, 잦은 연착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72	미국이나 유럽항 수출쿼터 에 대한 에로사항이 있음	보호무역
73	미국 수출 덤핑관세가 지속적으로 적용받고 있음	
74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자 하나 비자 발급 등의 절차가 까다로움	비자발급
75		
76	국제 환경 (국가간의 관계) 급격한 변화, 수출물품의 수출국에서 자체 개발 진행 등	시장변화

77		
78	통상 관련 전문가 부족으로 통상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전문인력 부족
79		
80		
81		
82	진성 바이어를 찾기 어려움	판로개척
83		
84		
85		
86	국가별 정보 부재	
87		
88	알제리의 까다로운 수입절차와 잦은 변경으로 애로사항이 많음	통관
89	현지 통관 지연 및 대금회수 지연 등	
90	이집트 수입 통관의 절차가 매우 복잡함	
91	국가별 통관 절차가 각기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음	
92		
93	정기적인 수출 건임에도 중국 수입 통관절차가 까다로움	
94	인도네시아 수출 제품에 대한 거래사의 할랄 강제 인증을 요구함	
95	수출국의 복잡한 절차	
96	수출국마다 부역정책이 달라서 신규시장 개척 시 어려움이 있음	
97	베트남, 대만의 경우 검수절차가 매우 까다로움	
98	베트남 세관 강화로 수입 통관 환경이 악화되었음	
99	베트남 APEC 카드 승인 지연이 빈번히 발생함	
100	인도 수출시 통관서류가 매우 복잡함	
101	이집트 수출시 서류 등록이 복잡하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함	
102		
103		
104	국가마다 품목분류가 명확하지 않음	품목분류
105		
106		
107	EU 수출관련 환경이슈가 우려됨	환경규제
108		
109	환율 변동의 위험성이 큼	환율
110		
111		
112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비용들을 공제하고 송금한다 증빙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	기타
113	수출관련 관세 환급절차가 어려움	
114	스리랑카 같은 국가부도 국가의 수입환경 악화로 제품을 수출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 당사로서는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등 서남아시아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지역의 고객들이 대부분 중국제품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임.	
115	일반 원재료에 대한 해외수입 관세비용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 (국내 원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함)	